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2월 2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과장 이종석(044-203-4370), 류재형 사무관 (4371)

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도 대가기준 생긴다!

-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등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개정·공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12. 9(화)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개정안이 12. 23(화)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힘.

*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□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* '제값받기'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.

* 일반 제조업체, 공공기관 등은 제품·서비스 개발시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용역(외주) 등의 형태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을 활용

**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약 4,000개이며('12년 기준), 총 매출액은 약 2.5조원 규모 (출처 :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)

○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,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디자인 산업에는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 및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, 디자인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.

- 그간 대안으로 준용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,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하여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.

< 참 고 1 >

◇ **전문디자인기업 불공정 피해 현황** (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)

- 조사기업의(148개 전문디자인기업) 67%가 피해경험 있으며, 연평균 2.3회 경험

◇ **지식서비스 산업군의 임금수준 비교('13년)**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엔지니어링	소프트웨어	디자인*
이사급(특급기술자)	92	90	48
부장급(고급기술자)	71	67	40
팀장급(중급기술자)	57	55	35
대리급(초급기술자)	44	46	24

* 디자인업계 직급임금실태조사결과('13년, 유니온리서치)

○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,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 공표할 예정임('15년 상반기).

-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는 적정 수준의 디자인 용역 대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민간에서도 계약 및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산업통상자원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"약 41만*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며,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"으로 기대된다고 밝힘.

* 산업디자인 인력 27.5만명 + 디자인 학과 재적생 13.6만명 ('12년 기준)

□ 한편,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'단순 외관 꾸미기(styling)'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*을 산업디자인에 추가함.

* 서비스디자인 : 사용자의 경험과 필요(needs)를 파악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방법론 디자인 방법론 (첨부 참고)

< 참 고 2 >

◇ **서비스디자인 사례:** 미국 BOA(Bank of America)의 '잔돈은 가지세요'(Keep the change) 서비스

- 체크가드로 물건 구매시 센트 단위의 잔돈을 올림해서 달러 단위로 결제하고, 추가 청구된 금액은 고객의 계좌에 저금해주는 서비스
- 금융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, 금융 사용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(비디오 녹화, 심층 인터뷰 등) 통해 그들의 경험과 필요를 파악하고 (잔돈 처리의 불편함, 저축 욕구 등) 이에 맞는 직관적 서비스를 개발

⇒ '금융'이라는 서비스 분야에 디자인적 사고 방식을 적용하여,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

○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, 법적 지원근거와 연구기반* 등이 부족하여 제조업 등 민간분야로의 본격 확산에 애로가 있음.

*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분석방법론, 개발물 검증 프로세스, 전문 인력 등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에 맞추어 서비스디자인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범과제 착수 및 인력양성·방법론 개발 등의 기반연구를 추진할 예정임.

□ 그 밖에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음.

○ 향후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류재형 사무관(☎ 044-203-43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서비스디자인의 개념 및 동향

□ **(개념)** 사용자 관찰·이해 등 사용자 경험에 근거하여, 사용자의 생각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신제품기획, 공공서비스 등에 활용

※ 영국정부는 디자인카운슬과 디자인연구소(Helen Hamlyn Centre for Design 등)과 협력하여 교통, 의료 분야에서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추진

○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리서치를 통해 서비스 관계자들의 실질적 문제 발견 및 해결안 제안 가능

□ **(동향) 최**근 국내에서도 **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 적용기회 증대** 추세

○ **(수요시장 - 민간)** 현재 민간 의료기관, 주요 기업 등에서 서비스 디자인 수요 확대

* **서울대학병원:** 의료환경서비스개선 (병원 내 정보전달 서비스디자인)을 위한 워크숍 개최 ('12) (영국 왕립예술학교(RCA)의 Helen Hamlyn Centre for Design과 협업)
* **서울아산병원**은 2013년,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디자인 이노베이션센터를 개소, 서비스 디자인으로 병원혁신 추진 중
* **삼성전자**는 서비스디자인 조직을 갖추고 인력 채용, 교육 등 준비 중
* 기타 현대자동차, 강북삼성병원, 삼성생명보험, 하나은행 등 인력채용 및 연구 중

○ **(수요시장 - 공공)**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서울시, 경기도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수요 확대

-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

○ **(공급자) 최근 국내 디자인전문기업은** 정체된 수요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**서비스디자인을 채택, 연구와 사업 확장 시도 중**

- 서비스디자인협의회 창립 (2014 현 회장 : 민영삼 The dna 대표)
- 디자인대학에서 서비스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신설(이화여대, 한양대) 및 타분야와의 융합학제로 서비스융합디자인대학원 협동과정 신설 (성균관대, 인제대 등)로 인력 양성